오색빛 연등물결, 佛都 부산 수놓는다

전통문화 산실 부산연등회, 4월 26일 개막점등

호기놀이로 봉축분위기 높여
전통문화체험·전통등 전시로
취약계층 돕는 자비나눔 실천
부산연등회는 5월 11일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도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부산연등회가 4월 26일 개막점등을 시작으로 봉축기간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에서 불이 켜진 봉축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도(佛都) 부산 전역을 오색빛 연등물결로 장엄하는 '부산연등축제'가 올해부터 '부산연등회'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찾아간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을 위한 변화로, 주최 측인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도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위원장 정오 스님)는 3월 27일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부산연등회와 부산연등문화제를 기획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 석산 스님은 "호국불교의 중심인 부산불교는 민족을 위한 희생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는 전통문화로 자리해왔다"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 부산연등회를 통해 불교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부산연등회의 막을 올리는 건 호기놀이다.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성행한 전통풍속 호기놀이는 아이들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연등을 만들 재료비를 구하는 활동이다. 부산연등회봉행위는 매년 호기놀이를 재현해 종교적 특색이 강한 연등행사가 민가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알리고 있다. 올해 호기놀이는 4월 26일 오후 7시 송상현광장에서 진행되는 부산연등문화제 개막점등식에서 펼쳐진다. 더불어 호국영령위령재와 느티떡 만들기 체험으로 봉축기간 시민들의 불심을 북돋는다.

연등문화제는 또 이날부터 다양한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5월 4~5일에는 사찰비빔밥을 맛볼 수 있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의 '무차만발공양'이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간다. 같은 날 전통문화체험한마당도 함께 열리며, 전통등 전시 및 소원등 달기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소원등 달기를 통해 모연된 수익금은 자비나눔으로 회향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봉축행사 회향 이후 청소년·장애인 시설에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봉축행사의 백미인 부산연등회는 5월 11일 오후 4시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연희단 어울림한마당'으로 시작을 알리며 오후 6시 봉축연합대회가 봉행된다. 어울림한마당은 부산연등회에서 처음 선보이는 행사로 불자들의 장기자랑을 뽐내는 자리다. 수상자들에겐 각각 상금이 주어진다.

연등행렬은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며 연희단의 화려한 의상과 율동, 아름다운 행렬등이 도심을 수놓는다. 연등행렬은 부산시민공원에서 출발해 하마정교차로, 양정교차로, 송공삼거리를 지나 송상현광장에서 회향한다.

한편, 부산연등회봉행위는 시민과 함께하는 SNS 공모전을 연다.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불지종가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연다

4월 13일 입재불공 이후 설계, 15일엔 수계식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내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8년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한다. 입재법회는 첫날 오전 9시 30분 경내 설법전에서 입재불공을 시작으로 입재식과 설계(設戒)가 이어진다. 14일에는 불공과 설계, 4월 15일 회향일에는 계첩 배부 후 수계식 및 영축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된다. 이후 수계동참자들은 계첩을 등에 메고 금강계단 앞에서 연비를 받은 후 사리탑을 돌며 회향한다.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에서는 전계사 영축총림 율주 덕문 스님을 비롯해 3사 및 7증사 스님들이 3일 동안 〈범망경〉 보살계본에 근거해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를 설할 예정이다. 또한 통도사는 매년 보살계 동참자를 격려하기 위해 특별한 시상식을 마련한다. 보살계 동참 10회와 15회, 20회에 참여한 수계자에게 메달을, 25·30·35·40회 수계자에게 성만패를 수여한다.

통도사는 "자장 율사의 계율정신을 되새기고 부처님 지혜광명을 잇고자 갑진년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법회를 봉행하오니 널리 동참해 세세생생의 불연을 맺는 인연공덕 되시라"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나눔기금 마련 위한 '일일맛집' 개최

미소원청년회, 취약계층 지원



사단법인 미소원 산하 미소원청년회(회장 류강렬)가 3월 22일 부산 범일동 미소원 법당에서 나눔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맛집을 개최했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기획한 일일맛집은 다양한 음식이 마련됐으며, 평소 음식 나눔에 앞선 미소원 봉사단의 손맛이 더해졌다.

지도법사 청명 스님은 "미소원에서 만나는 인연이 너무나 소중하다. 바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미소원 청년들의 활동으로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 법을 만난다면 더욱 기쁠 것"이라고 격려했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인재불사를 위해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다"며 "기금 마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 미소원이 생각하는 청년불사에 동참해주시는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엄승가회, 대학 불교동아리 9곳 지원

창립 9주년 맞아 900만원
부산불교교육대학 지원도


화엄승가회와 불산불교교육대학 스님들, 각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화엄승가회 창립 기념법회에 함께했다.

봉사하는 스님들의 모임 화엄승가회가 불자 대학생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9개 대학 불교동아리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화엄승가회(회장 자인 스님)는 3월 23일 부산불교교육대학 대강당에서 창립 9주년 기념법회봉행하고, 화엄승가회 소속 스님들의 모교인 부산불교교육대학 발전기금 300만원과 대학 불교동아리 지원금 100만원씩을 희사했다. 지원금을 받은 불교동아리는 부산대·인제대·부경대·대동대·동명대·동아대·해양대와 동아리 창립을 준비 중인 동의대·부산교대다. 더불어 학교별 1명씩 총 9명에게는 모범신행상과 부상을 수여하고 학생들의 포교활동을 격려했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교동아리를 지원한 건 불교를 접하는 대학생들을 편안하게 잘 안내해달라는 격려의 의미"라며 "늘 봉사에 함께해주신 회원스님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창립을 기념해 회원스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범혜 스님은 "화엄승가회는 모교출신이신 스님들의 모임으로, 모범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펼쳐 모두의 귀감이 돼주셨다. 화엄승가회가 부산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아 정말 자랑스럽다"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7년째 대학 불교동아리에 지원금을 전달해주시는 스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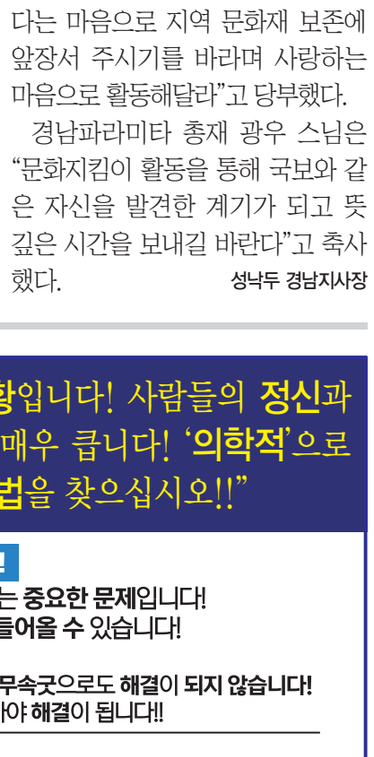
권성렬 부산교수불자회장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산에 있는 대학 불교동아리 학생 수가 많이 늘었다. 이것은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지도교수님과 신심을 내어준 학생들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화엄승가회 스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화엄승가회는 이날 관음사 천웅 스님을 상임부회장으로, 보현암 보현 스님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7명의 새로운 회원스님들에게 회원증을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행사에는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화엄승가회 회원스님들과 권성렬 부산교수불자회장을 비롯한 불교동아리 지도교수, 부산불교교육대학 회장단, 김은정 대불련 부산지부장 및 각 대학 불교동아리 대표자들이 함께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경남 문화재 지킬 청소년들 모이다

경남파라미타 문화지킴이 발대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김재호)는 3월 23일 마산 정법사 문수원에서 청소년 문화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경남파라미타 총재 광우 스님, 성주사 법안 스님, 불인사 송산 스님, 황룡사 법진 스님, 길상사 월서 스님, 정법사 초일 스님, 불인사 응공 스님을 비롯해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 하병형 수석부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 고장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역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파라미타 총재 광우 스님은 "문화지킴이 활동을 통해 국보와 같은 자신을 발견한 계기가 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561회 사명대사 춘계 향사
일시 : 2024년 4월 13일(토) 10시 장소 : 표충사 사당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표충사
주지 진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